

AM-OLED, 디스플레이 주도한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휴대폰·MP3 중심 ... 하이엔드제품 급성장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강호문 사장이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가 디스플레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1월2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사장단협의회에서 강호문 사장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의 전망과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성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AM-OLED를 적용한 휴대폰, MP3가 명품 제품군을 형성하는 것이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고해상도 하이엔드(고사양) 제품의 급격한 성장을 기회요인으로 꼽았다.

로엔드(저사양) 제품 시장은 연평균 4.4% 역성장하는 반면, 하이엔드 제품은 연평균 34% 성장해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기업의 공격적인 증설로 공급초과 가능성에 노출된 점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의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호문 사장은 “친환경, 친인간, 디자인성이라는 미래의 패러다임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라며 “플렉서블 등 혁신적인 제품은 기존 IT 시장은 물론 주변 산업으로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AM-OLED 분야에서는 삼성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고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25>